

보도시점 2025. 4. 29.(화) 11:00
< 4. 30.(수) 조간 >

배포 2025. 4. 29.(화)

대미(對美) 협의 이후 업계소통 이어나가

- ‘제2차 對美 무역통상 현안간담회’ 개최, 대미 협력 및 수출확대 방안 모색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2+2 통상 협의 이후, 수출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4월 29일(화)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‘제2차 對美 무역통상 현안간담회’를 개최하였다.

금번 간담회는 조선, 항공우주, 방산, 원전, 배터리, LNG 등 대미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5명이 참석하였으며, 관세 등 美 무역·통상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, 한-미 간 산업 협력 및 대미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참석기업들은 美 관세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로 인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 협의와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,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산업협력 강화, R&D 예산 확충,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.

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“美 관세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업계 애로 해소 및 상호 호혜적인 대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.”고 밝혔다.

특히, “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조선 RG 공급 및 방산 등 전략산업 수주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, 관세대응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관세대응, 판로 개척, 물류애로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.”고 하며, 이와 함께 향후 추진될 대미 협의에서 관세 면제 뿐 아니라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“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목소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, 오는 5월 중순 예정된 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내 정부,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·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우 (044-203-4020)
		담당자	서기관	김윤희 (044-203-4021)
			사무관	서두원 (044-203-4024)



- 일시 : '25. 4. 29(화), 15:00 ~ 16:30
- 장소 : 서울 트레이드 타워 51층 중회의실
- 참석자 : 산업부 무역투자실장, 무역협회 회장, 기업 및 유관협회 임원
- (기업) **조선** HD현대, **항공우주** KAI(한국항공우주산업), **방산** LIG넥스원, **배터리** 삼성SDI, **원전** 두산에너빌리티, **LNG** 한국가스공사
 - (협회) **조선**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/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, **항공우주**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, **방산** 한국방위산업진흥회, **배터리** 한국배터리산업협회
- 주요 내용
- 미국발 통상리스크 관련 업종별 수출영향점검 및 대응

- 세부 일정(안) * 모두발언까지 언론 공개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15:00~15:02 (2')	• 입장 및 개회	사회자
15:02~15:08 (6')	• 모두발언	무역협회 회장 무역투자실장
15:08~15:23 (15')	• 발표 - 트럼프 2기 한미 산업 협력을 위한 주요 과제 및 해외 수출시장 확대 방안	산업연구원 양주영 실장
15:23~16:28 (65')	• 업계 현황공유 및 토론, 건의	참석자 전원
16:28~16:30 (2')	• 폐 회	사회자